http://doi.org/10.34227/tjocc.2023..29.211

로맨스 드라마 〈킹더랜드〉 스토리텔링 연구
- 클리셰 구현의 변주와 2030세대 코드 중심 -

유재영*

국문초록

최근 달라진 콘텐츠 제작 및 시청 환경에서 TV 로맨스드라마 <킹더랜드>가 어떻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신데렐라 서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클리셰 구현의 변주'와 '2030세대 코드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킹더랜드>는 로맨스의 핵심갈등을 만드는 클리셰를 유지하되 효능감만 남기고 감정의 과잉과 신파를 생략해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켰다. 또한 이항대립 요소를 재배치해 '여주인공 대 악녀'의 대립 구도를 '남주인공 대 악녀'로 바꾸어 갈등의 상투성을 극복하고 신장된 여성주의를 반영했으며 신분상승의 대상을 여주인공에서부터 노동자까지 확대해 수용자 층의 대리만족 경험을 확장시켰다. 한편 2030세대를 겨냥해 정통 TV드라마의 문법을 깬 쥬이상스 텍스트 기법 및 수평적 소통으로 희극적 상황을 연출했으며 감정노동 현장의 사실적 재현으로 2030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클리셰를 효과적으로 변주하고 변화된 수용자 심리를 발 빠르게 포착해 반영한 <킹더랜드>의 스토리텔링은 익숙함과 변형이 공진화한 대중 서사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스토리텔링, 클리셰, 신데렐라, 2030세대, 로맨스드라마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 과정(Ph.D., Department of Creative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접수일(2023년 11월 15일), 게재 확정일(2023년 12월 12일)

I. 서론

1. 연구 목적

불우한 형편에 있는 여성이 왕자에게 선택받아 사랑과 결혼을 통해 계급 상승에 성공하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전 세계에 편재한 이야기로서 수많은 콘텐츠를 파생시켰다.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신데렐라 드라마는 한국 TV드라마의 흥행 코드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재생산됐고 서사 관습과 변형을 보이며 로맨스 드라마의 하위 장르로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비슷한 이야기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과 페미니즘 인식의 부상으로 신데렐라 드라마의 인기는 주춤해졌다. 뿐만 아니라 OTT 오리지널 드라마를 비롯한 웹 콘텐츠의 확산 이후 긴장감 넘치는 빠른 전개와 독특한 상상력의 새로운 이야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로맨스 장르의 인기는 하락했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힘을 잃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종영한 JTBC 〈킹더랜드〉는 상투적인 이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흥행에 성공해 신데렐라 드라마의 부활을 알렸다. 종영 시청률 13.8%로 JTBC 역대 시청률 7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은 446,900,000시간으로 TV동시 방영 한국드라마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2위, 로맨스 장르로는 1위를 차지했다.[1)]

〈킹더랜드〉의 이 같은 성공은 화려한 스타 캐스팅과 상업적 홍보 효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킨 〈킹더랜드〉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중예술을 대표하는 TV드라마는 당대 대중이 지니고 있는 사회 심리를 반영하는 기록물로서 유행과 변화에 민감하여 〈킹더랜드〉가 어떻게 클리셰 구현을 차별화하여 신데렐라

1) FlixPatrol, https://flixpatrol.com/streaming-services/most-hours-total/netflix/#toc-tv-shows (검색일 2023년 11월 08일자)

서사의 매너리즘을 극복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 대중이 지니고 있는 사회 심리를 측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복잡한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데렐라 드라마의 간과된 가능성을 탐색하여 K 드라마의 흥행 장르를 확장시키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와 연구방법

한국 로맨스드라마의 신데렐라 서사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뤄졌으나[2] 〈킹더랜드〉에 대한 논문은 아직 없었다.

---

2) 해당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연구: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1.
윤선희,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전이와 코라: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의 시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다시 읽기」, 『한국언론학보』 제49권(제2호), 한국언론학회, 2005, 84-109쪽.
이해년, 「한국방송드라마의 남성성보기 : 신데렐라 콤플렉스 갈등구조와 극본기제로서의 재벌 주인공」, 『문학과 영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문학과 영상학회, 2006, 13-22쪽.
박준하, 「'신데렐라' 드라마 수용자에 관한 연구 : 〈파리의 연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6.
윤혜성, 「신데렐라 드라마가 미혼여성들의 낭만적 결혼관 계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7.
신원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신데렐라 콤플렉스" 비평의 문제점-〈꽃보다 남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1권, 한민족문화연구, 2009, 493-524쪽.
김홍규, 오세정, 「판타지 드라마의 심리적 만족 유형에 관한 연구:〈꽃보다 남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1권(제1호), 한국방송공사, 2009, 143-186쪽.
함복희,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콘텐츠 요소 연구」, 『어문론집』 제44권, 중앙어문학회, 2010, 219-252쪽.
곽대섭, 「한류 드라마 속 '사랑 담론'에 대한 서사전략 분석: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3.
박은하, 「21세기 TV드라마의 신데렐라 양상 연구: 〈시크릿 가든〉과 〈청담동 앨리스〉를 중심으로」, 중앙대예술대학원 석사학위, 2014.
이다운,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 서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7.
윤석진, 「텔레비전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경제적 타자성과 판타지 장치」, 『대중서사연구』 제24권(제1호), 대중서사학회, 2018, 349-382쪽.

신데렐라 드라마가 연이어 인기를 얻었던 2000년대 초반 신데렐라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신데렐라 드라마에 대한 신드롬급 인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담론이나 신데렐라 콤플렉스 비평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됐으며 신데렐라 드라마가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용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신데렐라 드라마 연구는 서사 진화 양상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고 자극적이고 틀에 박힌 TV드라마 제작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써 신데렐라 드라마의 장르 관습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신데렐라 드라마의 개별적 서사 연구와 함께 신데렐라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김은숙 작가 드라마의 신데렐라 서사에 대한 분석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TV드라마가 강세를 이루고 로맨스 장르가 붐을 이루며 신데렐라 드라마에 대한 소구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던 시점의 분석이거나 신데렐라 드라마가 감소하던 시기에 진행된 신데렐라 드라마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 고찰이다.

OTT시대가 열리며 한국 TV드라마 지형도는 바뀌었다. 가족드라마, 멜로드라마, 사극처럼 일상성을 강조하여 기존에 대세를 이루던 드라마는 줄어들고 독창적 세계관과 방송 심의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표현의 공포물, 범죄 수사물, 판타지 등이 인기를 얻으며 색다른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중이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남녀의 애정 관계에 천착하는 연애담은 더 이

임다빈, 「김은숙 신데렐라 드라마의 도식적 내러티브 분석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상속자들〉, 〈도깨비〉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8.

김혜정, 「〈콩쥐팥쥐〉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로 본 고전 인물 비틀기 양상과 의미-〈내 사랑 팥쥐〉, 〈신데렐라 언니〉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41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29-167쪽.

강성애, 「TV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에 나타난 계급 표상(表象) 연구」, 『리터러시 연구』 제11권(제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363-388쪽.

신주진, 「김은숙 드라마의 대중적 낭만주의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169-210쪽.

상 대중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졌고, 수용자 대중의 페미니즘 의식이 상승하면서 신데렐라 드라마의 쇠락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3]이라 판단되었다.

〈킹더랜드〉는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전형적인 신데렐라 서사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드라마 판도에 변곡점을 이루어 주목할 만하며[4] 수십 년 동안 누적적으로 변화한 이야기 원형으로 현재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킹더랜드〉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는 것은 원천 서사에 담긴 인류 보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원천 서사의 상투성을 시의 적절하게 해석해 대중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 서사 전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대중이 원하는 서사의 지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킹더랜드〉 스토리텔링 분석을 위해 첫째, 〈킹더랜드〉가 클리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 구현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킹더랜드〉가 2030세대가 향유하는 문화와 그들의 사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데렐라 민담과 드라마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플롯 및 주요인물 캐릭터와 갈등 구조, 대사와 화법 및 영상 요소를 분석 자료로 삼을 것이다.[5]

---

3) 이영미, 『신데렐라는 없었다』, 서해문집, 2022, 238쪽.

4) 2022년 SBS〈사내 맞선〉이 평범한 여주인공과 재벌 남자의 사랑과 결혼을 다루어 흥행에 성공했으나 남녀의 계약 연애라는 설정과 원작인 웹툰의 만화적 연출이 전형적 신데렐라 드라마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전형적인 신데렐라 드라마 텍스트는 〈킹더랜드〉로 한정하기로 한다.

5) 〈킹더랜드〉는 미디어 경험이 웹 콘텐츠와 연동되어 있는 2030세대를 겨냥해 드라마 남녀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해 드라마 방영과 동시에 연재를 시작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웹툰을 제외한 드라마로 텍스트를 한정해 서사 전략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II.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신데렐라 서사

로맨스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사건을 뜻하며 문학에서는 12~13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통속 소설을 지칭하는데 애정담과 무용담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기적(傳奇的)이고 공상적인 요소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TV 로맨스드라마는 멜로드라마의 특징[6]을 내포하고 있는데 멜로드라마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상황의 등장과 비극적 정서의 과장으로 눈물을 자아내게 구성된 서사 양식으로 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억압받는 여성 등장인물의 수난을 주요 서사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여성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7] 1990년대 초반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멜로드라마는 코미디와 결합해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로 이어져 신세대의 감각을 성공적으로 포착[8]했고 이는 2000년대 연애담을 소재로 한 한국 TV드라마의 흥행 장르로 정착한다. 이후 멜로드라마의 서사 양식에 코미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TV 로맨스드라마가 시대에 따라 관습과 변형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TV 멜로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MBC〈사랑을 그대 품 안에〉(이선미·김기호 극본, 이진석 연출)가 인기를 끌면서 부터이다. 고졸 백화점 여사원과 백화점 후계자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성공하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부모가 없고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주정뱅이 오빠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신데렐라와 비슷한 처지이지만 발랄함과 당당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여

---

6) 우리나라에서 '멜로드라마'는 '장애가 많은 연애 이야기'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서사 장르 개념으로 통용된다. 이때 '장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는데 이는 멜로드라마가 연애담을 통해 사회 관습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서사 장르임을 드러낸다. (대중서사연구회, 『대중서사의 모든 것1. 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13쪽)

7) 윤석진, 『한국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23-23쪽.

8) 유지나,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 "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 민음사, 1999, 25쪽.

러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이 인기 만화의 주인공 '캔디'와 닮았기 때문에 여주인공 캐릭터를 '캔디'형 신데렐라, '캔디렐라'라고 불렀다. 반면, 남자주인공은 재력은 있지만 가족사적 상처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그늘진 캐릭터로 사랑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주인공의 상처 입은 마음은 여주인공의 밝고 따뜻함으로 치유된다. 이후 '캔디렐라' 이야기는 TV 멜로드라마에 전면적으로 등장했고[9] 중하류층 여자와 상류층 남자의 연애담은 신데렐라 드라마로 불리며 로맨스드라마의 하위 장르로 자리 잡았다.

타인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재벌의 여자가 되어 자신을 구박하던 이들 앞에 승리자로 선다는 이야기의 극적인 측면과 재벌의 로맨스라는 판타지적 설정 때문에 신데렐라 드라마는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받았다. 천대받는 여주인공 캐릭터는 동정과 연민을 느끼기에 좋을 뿐 아니라 여주인공과 상류층 남자의 계층 차이는 사랑에 강력한 장애를 형성하여 멜로드라마의 주된 정서인 비애감이나 애틋함을 유발하기 좋은 플롯이 되었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해 여성이 신분상승하는 결말은 드라마 주 시청층인 여성의 욕망을 대리 만족시킬 수 있어서 신데렐라 드라마는 신드롬급 파급력을 만들었고 누추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낭만을 보여주는 장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자에 의해 계급적 구원을 받는다는 주된 플롯이 여성의 의존성 문제로 부각되어 신데렐라 캐릭터와 이야기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콜레트 다울링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용어[10]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성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비판하고 이 용

---

9) 「'킹더랜드', '서비스직 천재' 신데렐라가 나타났다 [K콘텐츠의 순간들]」, 『시사인』, 2023년 07월 12일자.

10) 콜레트 다울링은 타인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 의존상태가 당시의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명명했다. 또한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주로 억압된 태도와 불안이 뒤엉켜 여성들이 그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일종의 미개발 상태로 묶어두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콜레트 다울링, (Cinderella complex), 이호민,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38-39쪽).

어가 대중화되면서 신데렐라는 배척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처럼 취급받기에 이르렀다.[11)]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듯 신데렐라 드라마는 정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클리셰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자가 발전하여 시기별로 각기 다른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데렐라 드라마의 인기 경향은 착하고 재능 있는 여주인공과 이를 시기하는 악한 여주인공이 직업적 성공과 사랑의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인 반면, 2000년대 중반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별로 없는 여주인공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대체로 서민 생활의 현실성이 강화된 캐릭터이거나 귀엽고 천진난만한 캐릭터로서 얼떨결에 까칠한 부자 남자의 가정부나 아내가 되어 구박을 받다가 사랑에 빠짐으로써 희극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데렐라 드라마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판타지적 설정을 추가하여 인기를 이어가는데 이 시기의 남자주인공은 안하무인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다소 몰상식한 캐릭터로 변화했다.[12)] 2010년대 들어서서 신데렐라 드라마 대신 평범한 중하층 청년의 일상적이며 잔잔한 사랑 이야기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데 얽히고설킨 애증 관계와 격하게 전개되는 극적인 사건은 사라지고 학업·직업·생계 문제를 싸안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연애와 결혼이 과연 자신에게도 가능하고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일상적 삽화가 젊은 세대의 특성과 심리를 포착했다.[13)] 이 시기에 방영된 〈청담동 앨리스〉(김지운·김진희

---

11) 이다운, 「한국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서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7, 110쪽.

12) 이영미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이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무례하고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점이 희극적인 전개에 적합하다고 봤고 이러한 경향은 수용자의 신데렐라적 계층 상승에 대한 공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수용자가 자신의 감정이입 대상인 여주인공의 초라한 현실을 인정한 한편, 부자 남자와의 대면이 판타지 설정 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 만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13) 이영미, 앞의 책, 240쪽.

극본, 조수원·신승우 연출)에서 여주인공은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바라는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신데렐라 서사를 해체했는데 이는 수용자의 변화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신데렐라 드라마 위상의 변곡점을 시사한다.

III. 신데렐라 드라마 〈킹더랜드〉

드라마 〈킹더랜드〉는 2023년 6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JTBC TV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어린 시절 편모를 여의었지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천사랑은 서류 착오로 2년제 대학 졸업에도 킹호텔에 입사해 호텔리어의 꿈을 이루고 킹그룹 회장 아들인 구원과 사랑에 빠져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서사에 대해 상투적이라는 평가와 익숙하고 편안한 서사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지만 〈킹더랜드〉는 유의미한 기록들을 남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종영 시청률 13.8%으로 JTBC 역대 시청률 7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446,900,000시간으로 TV동시 방영 한국드라마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2위, 로맨스 장르로는 1위를 차지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진 민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르네-톰프슨 분류제(Aarne-Thompson classification system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유사형 민담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그림형제(Jacob Grimm, Wilhelm Grimm)의 〈재투성이(Aschenputtel)〉와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쌍드리용 혹은 유리구두(Cendrillon)〉이다. 영어권에서는 〈신데렐라(Cinderella)〉로 알려져 있다.[14] 샤를 페로는 〈신데렐라〉를 오늘날 널리 알려진 형태로 개작했으나 구전돼 온 이야기를 궁중에서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세련되게 다듬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사가 많다.[15] 이에

---

14) 손은주, 「신데렐라형 민담의 의미와 역사」,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14권, 한국독일현대문학회, 2000, 162쪽.

15) 브루노 베텔하임, (The uses of enchantment), 김옥순, 주옥, 『옛이야기의 매력2』,

반해 원전을 살린 그림 형제의 민담은 여주인공과 죽은 생모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킹더랜드〉의 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사건과 캐릭터성이 더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형제의 민담을 비교 텍스트로 삼겠다.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은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에 나타난 모티프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구박받는 여주인공, 난롯가에서 잠을 자야 함, 아버지에게 부탁한 선물,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은 개암나무 가

〈표 1〉 민담 〈신데렐라〉와 드라마 〈킹더랜드〉의 주요 플롯 비교

민담 〈신데렐라〉	드라마 〈킹더랜드〉
1. 신데렐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다.	천사랑은 어린 시절 편모를 여읜다.
2. 신데렐라는 계모와 의붓언니들에게 핍박 받는다.	천사랑은 전문대 출신 학벌 때문에 킹호텔 지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모를 당한다.
3. 신데렐라는 아버지로부터 개암나무 가지를 선물 받아 어머니 무덤가에 심는다.	천사랑은 엄마와 호텔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을 노트에 그려두고 힘들 때마다 노트를 보며 회상한다.
4. 신데렐라는 연회에 가고 싶지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천사랑은 킹더랜드에 올라가고 싶지만 업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5. 신데렐라는 친모와 동물들의 도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연회에 참석한다.	천사랑은 회사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킹더랜드로 올라간다.
6. 신데렐라와 왕자가 만나 춤을 춘다.	구원이 킹더랜드로 올라온 천사랑을 좋아하게 되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다.
7. 신데렐라는 연회로부터 세 번 도망쳐 나와 숨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다.	천사랑은 구원과의 연애가 들통 나 직원들에게 비난받고 구회장에 의해 킹관광호텔로 좌천당해 숨듯이 지내게 된다.
8. 왕자는 신발 한 짝으로 신데렐라를 찾아다닌다.	구원은 천사랑을 찾아 킹관광호텔로 내려간다.
9. 의붓 언니들이 속임수로 왕자와 결혼하려 했지만 들통 나고 벌을 받는다.	구회장은 구원의 친모에게 경고 받고 구화란은 구원에게 호텔 사장직을 내어주게 된다.
10. 신데렐라는 왕자와 행복한 결혼을 한다.	천사랑과 구원은 행복한 결혼을 한다.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시공주니어, 1998, 402쪽.

지, 여주인공에게 부과된 과제들,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동물들, 신데렐라가 무덤가에 심은 나무로 변형되어 나타나 아름다운 옷을 제공하는 어머니, 연회에서 왕자를 만남, 그 연회로부터 세 번 도망쳐 나옴, 처음에는 비둘기 집에 숨고, 두 번째는 배나무 속에 숨는데 그 나무를 아버지가 베어버림, 송진으로 된 덫을 놓는 속임수와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림, 구두 주인을 찾으러 다님, 언니들이 발을 베어내는 행위와 신부감으로 인정되었다가 가짜임이 드러남, 그 속임수를 폭로하는 동물들, 행복한 결혼, 악한들에게 가해지는 응보[16]이다. 스티스 톰슨의 모티프들을 신데렐라 이야기의 10가지 플롯으로 정리하고 10가지 플롯을 기준으로 〈킹더랜드〉의 단위 서사를 추출하면 〈표 1〉과 같다.

한국 TV의 신데렐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에게는 계급 상승의 욕망 부재, 계급적·경제적 모멸감 경험, 왕자로 인한 육체적·경제적 수혜, 삼각관계의 연루와 경쟁의 승리, 왕자의 극적 변화 유발이라는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17] 〈킹더랜드〉의 여주인공에게도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처럼 〈킹더랜드〉는 민담의 구조와 한국 TV에 나타난 신데렐라 서사의 공통적인 특징을 따르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드라마이다. 그러나 독자적 스토리텔링으로 익숙한 서사에 변형을 시도하는데 민담과 신데렐라 드라마의 클리셰 구현을 차별화시킨 것과 주제의식 및 작품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2030세대 취향에 맞게 변주한 것이다.

1. 클리셰 구현의 변주

1) 빠른 전개와 신파의 생략

로맨스드라마의 핵심서사는 남녀 주인공이 연애에 장애를 겪는 것이

16) 위의 책, 406쪽.

17) 이다운, 앞의 글, 114-123쪽.

고 신데렐라 드라마에서 핵을 만드는 주요 갈등은 민담의 플롯에 따라 남녀주인공의 신분 차이, 계모와 의붓 언니처럼 여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여주인공의 성공을 방해하는 적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주인공은 비루한 형편이 남자 집안과 비교당하며 계급적·경제적 모멸감을 받는데 특히 남자 부모의 반대는 남녀 사이 가장 큰 장애로써 여자는 남자의 부모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이별을 강요받는다. 이 부분은 서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여자가 당하는 수모를 과장스럽게 설정하고 여자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남자를 위해 떠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도록 설정해 둘 사이에 위기를 고조시키는 서사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킹더랜드〉는 클리셰를 유지하되 갈등을 빨리 해결해 단기간에 역경을 이겨내는 서사 구조로 감정의 과잉을 배제한다.

구원과 천사랑의 연애 사실이 기사로 폭로되어 천사랑은 직원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구원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해결되고 구원의 해외 출장 기간 동안 천사랑이 구회장에 의해 지방 관광호텔로 좌천당하지만 구원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가 천사랑을 서울로 데려온다.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은 14회 한 회 동안 발생하는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천사랑의 지방 발령이 14회 6시퀀스에서 발생하고 7시퀀스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일터를 향해 떠나며 잠시 이별을 겪지만 14회 마지막인 9시퀀스에서 귀국한 구원이 천사랑의 좌천 소식을 듣자마자 지방에 내려가기로 하고 15회 4시퀀스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여 갈등이 해결된다.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헤어진 후 재회하기까지 중간 시퀀스는 총 5시퀀스이며 해당 시간은 약 37분으로 이 시간 동안 천사랑이 새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과 아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구원의 생모 한미소의 갈등 해결 과정이 나타난다. 때문에 신분 차이로 인해 수모를 겪는 여주인공의 가련함이나 남녀 사이 비련은 강조되지 않고 사랑의 애틋함과 진정성만 부각된다.

〈표 2〉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지속 시간 분석 (14–15회 시퀀스)

시퀀스		내용	R.T.	시간
14회	1	구원과 천사랑의 열애가 구회장과 직원들에게 알려진다.	00‘57“~	15‘26“
	2	구원의 연애 상대가 폭로되어 천사랑이 직원들에게 비난을 받자 구원이 나서서 해결한다.	16‘23“~	9‘39“
	3	연애를 빌미로 구원을 쫓아내려는 구화란을 구회장이 좌천시킨다. 구화란은 구회장이 구원에게 애정을 쏟아 실망하던 청소년기를 회상한다.	26‘02“~	4‘34“
	4	구원이 천사랑 할머니를 찾아와 자신의 신분에 대해 해명한다.	30‘36“~	3‘41“
	5	다을 남편의 퇴사로 다을이 시부모에게 가장으로 대접받는다.	34‘17“~	2‘46“
	6	구회장은 구원에게 3주간의 해외 출장을 허락하고 천사랑에게 지방 발령을 내리며 구원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고 권한다.	37‘03“~	3‘52“
	7	출장 전날, 구원은 출장에 대해 얘기하고 두 사람은 놀이공원 야간매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각자의 일터로 떠난다.	40‘55“~	9‘22“
	8	지방에 내려 온 천사랑은 관광호텔에 적응한다.	50‘17“~	9‘03“
	9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천사랑을 찾는 구원은 천사랑이 인사발령 받았다는 것을 알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미소와 마주친다.	59‘20“ ~ 65‘40”	6‘20“
15회	1	한미소는 구회장에게 구원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놔두라고 경고한다.	00‘56“~	5‘20“
	2	구원은 한미소와 만나 지난날에 대한 쌓인 감정을 푼다.	06‘16“~	10‘28“
	3	천사랑은 관광호텔을 지키려고 대표를 설득하다 무안당한다.	16‘44“~	6‘06“
	4	구원이 관광호텔을 찾아와 천사랑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디든 함께 있기로 한다.	22‘50“ ~ 26‘48“	3‘58“

출처: 저자 직접 작성

민담의 또 다른 주요 플롯은 신데렐라와 의붓 언니의 갈등으로 신데렐라 드라마에서는 남주인공과 삼각관계를 이루어 여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성공을 방해하는 악녀와의 갈등으로 설정되었다.

〈킹더랜드〉에서 천사랑은 구원의 정략결혼 상대인 재벌가 유리와 삼각관계를 이루고 유리가 구원에게 적극 구애하여 갈등을 만들지만 남녀주인공의 빠른 대응으로 금세 해결된다. 전체 16회에서 유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3시퀀스 중 3신(scene)[18]에 불과해 악녀의 클리셰는 잠시 위기감을 줄 뿐 사건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남주인공의 매력을 강화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공고히 하는 기능만 발휘한다.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여주인공 캐릭터의 변화 때문이다. 천사랑은 친절과 성실함으로 2년 연속 베스트 탤런트에 뽑히고 회장에게 인정받아 4년제 대학 출신 직원들보다 빨리 승진했으며 호텔리어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 능력으로 시기하고 견제하던 선배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알파걸이다. 천사랑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연애 사실이 알려져 직원들에게 비난 받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구원을 찾아가 위로하며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가 하면 구원과 유리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당황한 자신에게 구원이 찾아와 걱정하며 해명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구원을 안심시킨다.

천사랑의 갈등은 사랑이나 성공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진정한 꿈을 찾으려는 내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매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킹호텔에서 직원으로 성공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인가를 의심하고 결국 자신의 철학과 이야기가 있는 호텔을 만들기 위해 킹호텔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이때 천사랑은 구회장에게 밥을 사며 퇴사하고 당당히 구원과 만나겠다고 소신을 밝힌다.

---

18) 유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6회 마지막, 킹더랜드에서 생일 파티를 즐기는 장면, 13회 마지막과 14회 시작에 걸쳐 구회장 집에서 구회장, 구원, 유리 부친과 저녁을 먹으며 구원과의 결혼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 14회에서 구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장면 등 총 3시퀀스이다. 7회에서 구원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생일 파티 중 유리와 나눈 대화가 인서트 되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일과 사랑에서 강한 주체성과 성취욕으로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천사랑 캐릭터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켜 신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여주인공의 비극과 드라마의 신파를 생략시킨 채 사랑의 진정성과 애틋함을 강조시키는 한편, 자신의 능력으로 커리어를 쌓는 여성 성장서사를 완성한다. 또한 삼각관계 때문에 생기는 남녀 관계의 위기도 쉽게 해결함으로써 캐릭터의 매력과 사랑의 순수함을 강화한다. 이처럼 〈킹더랜드〉는 클리셰가 만드는 상투성과 심각함을 덜어내고 대신 연애가 만드는 행복감과 경쾌함을 추가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데렐라 드라마로 차별화한다.

2) 이항대립의 재배치

신데렐라 이야기는 '선대 악'의 이원구조가 극명한 서사 구조로 신데렐라 플롯은 형제들 사이의 경쟁 심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19] 신데렐라의 순결함과 의붓 언니의 사악함은 핵심갈등을 만드는 이항대립 구도로써 신데렐라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녀로 설정해 서사를 이끌어왔는데 〈킹더랜드〉는 여주인공의 적대자로 등장했던 악녀를 남주인공의 적대자로 배치하고 적대자를 남주인공의 이복형제로 설정했다.

구회장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 구화란은 청소년 시절 이복 남동생인 구원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시기하다 새 엄마 한미소가 사라지자 어린 구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힌다. 성인이 되어서는 노골적으로 구원을 집과 회사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킹그룹 실세가 된 후에는 킹호텔 본부장이 된 구원을 견제해 매사 하대하고 사사건건 대립한다.

구화란과 구원의 이분법적 간극은 성별과 친모의 신분, 경영관이나 리더십, 가족관, 그들이 속한 세대 구분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구화란은 구

---

19) 브루노 베텔하임, 앞의 책, 400쪽.

원을 제치고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과 아들과 헤어진 채 일에 몰두한다. 반면 회사에 관심 없던 구원은 사라진 생모가 킹호텔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호텔 경영에 뛰어들어 구화란과 원치 않던 경쟁을 벌인다. 돈과 관계된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화란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은 경영 동기에서부터 경영 방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차이를 보이며 가치관의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선 굵은 갈등을 만들고 드라마에 긴장감을 형성한다.

〈표 3〉 구원과 구화란의 이항대립 요소 비교

	구원	구화란
구회장과의 관계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나이(세대)	30대 (2030세대)	40대 (4050세대)
생모 출신	호텔 직원	상류층
인간관	진정성이 중요	출신이 중요
경영관	고객과 직원 만족	매출이 왕
가족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다
결혼 여부	미혼	기혼
회사 측근	나상식 과장	임원급 부하직원들
리더십	소통형 카리스마	독단적 카리스마
수익 창출 계획	위탁경영, 체인 경영 등 글로벌 신사업으로 수익 창출	구조 조정, 스마트시스템 구비 등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 창출
회사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회사를 일군 직원	회사에 도움 되는 고위관료들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신데렐라 드라마의 전형적인 인물들은 도덕적 가치들을 상징적으로 체현해낸다. 선의 화신으로서의 남녀주인공이나 대립적인 악인들은 타고난 본성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선악의 속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유의미하다. 전혀 다른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경쟁하는 '착한 여자 대 나쁜 여자'의 대립구도는 드라마에 강한 갈등구조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신데렐라 장르의 특유의 재미가 나오는 원천[20]이었다. 하지만 여자들의 대결이 자신을 계발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권력대결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 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성 간의 질투, 열등감, 시기, 적대감과 그에 따른 적대적 행위로 인식되어 드라마에 따르는 비판적 여론인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상쇄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킹더랜드〉는 갈등 구도를 '착한 여자 대 나쁜 여자'에서 '남자 대 여자', '좋은 오너 대 악덕 오너'의 대립구도로 바꾸고 형제간의 경쟁이라는 민담의 플롯을 현대적으로 재현할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머무르던 로맨스드라마의 갈등을 기업 지배구조의 명암을 다루는 공적 영역으로 넓힌다. 반면, 적대자가 사라진 여주인공 주위에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배치해 여자들의 우정을 강조하는 서사를 추가함으로써 신데렐라 플롯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신장된 여성주의를 반영하는 서사 전략을 취한다.

3) 구원 서사의 확장

왕자의 선택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에 이르는 신데렐라의 구원 서사는 신데렐라 드라마에서 계급이 낮은 여성이 상류층 남자를 만나 경제적 안정과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과 상처받은 상류층 남성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성의 내적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한다는 결말로 나타난다.

〈킹더랜드〉는 서로를 통해 결핍을 채우고 변화하는 남녀의 구원 서사를 노동자들의 결핍을 채우는 서사로 확장시킨다. 킹호텔은 이를 위해 인물의 행위들과 열정들이 장소와 대상들의 집합을 "배경으로 하여" 적절히 나타나도록[21]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특급 호텔로 설정된

---

20)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2, 44-45쪽.

킹호텔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은 남녀 주인공의 외모를 돋보이게 만들어 설렘을 증폭시키고 두 사람의 사내 연애를 이벤트처럼 세련되게 연출하는 데 용이해 연애의 낭만성을 강화한다. 최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는 킹더랜드의 유럽풍 인테리어와 화려한 샹들리에, 동화적 연출은 민담 속 파티장을 연상시키는데 킹더랜드에서 업무와 일상을 공유하는 구원과 천사랑이 파티를 즐기러 온 왕자와 신데렐라처럼 보이는 효과를 줌으로써 로맨스의 판타지성을 표현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한다.

반면, 킹호텔은 호텔리어들의 감정 노동 현장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공간으로써 갑과 을의 계층 분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호텔리어들은 고객 접대 매뉴얼에 따라 웃는 법까지 교육받으며 손님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친절함을 유지해야 하고 임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여야 한다.

손님과 임원 사이에서 절대 을의 위치에서 일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천사랑 친구들인 승무원 오평화와 면세점 직원 강다을의 보조서사로 추가되고 강조된다. 모두 킹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이들은 늘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자신들을 '을 중의 을'이라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한다.

감정노동자들을 피곤한 현실로부터 구출해 준 것은 구원이다.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직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구원은 연애를 하는 동안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를 체험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의 왕자님'이 된다.

구원과 천사랑 친구들의 대화 (9회 58'40"- 59'35")

구　원: 아니, 대체 회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은 해줘야지. 그리고 상사가 말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 그것보다 상사가 약속을 해놓

---

21) 시모어 채트먼,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홍재범, 『이야기와 담화 :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호모루덴스, 2019, 174쪽.

고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다을: 되죠. 높으신 분들은 다 위만 보고 살지, 우리같은 아래 사람들 신경이나 쓰나요? 잘못 되면 윗분 덕이고 안 되면 우리 탓인데.

구 원: 아니, 그게 왜 다을씨 잘못입니까? 여기 있는 세 분 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건 회사 잘못이에요. 약속 안 지킨 건 상사들 잘못이고. 이건 그냥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지고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킹더랜드 직원들의 회식 대화 (12회 34'15"-35'10")

직원1 :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진짜 좀 멋있지 않아요? 와, 임원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직원2 : 그러게. 고객이 뭐라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 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솔직히 나도 놀랐어.

직원3 : 확실히 본부장님은 진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통장 확인했어요?

천사랑: 아니 왜요?

직원4 : 이번 100주년 기념 선물로 상여금 나왔어, 100만원 씩.

천사랑: 허? 원래는 숙박권이나 뷔페 식사권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직원4 : 원래 그랬는데 이번에 본부장님 지시로 무슨 선물 받고 싶은지 전 직원들 설문조사했잖아. 현금이 압도적으로 1위 하니까 바로 쏘신 거지.

직원1 : 아니, 회사가 언제 우리 받고 싶은 거 준 적 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조사한 줄 알았는데.

직원2 : 그러게. 윗분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다,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짠할까? 구원 본부장님을 위하여!

왕자를 만난 신데렐라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단숨에 왕가의 신분으로 변모하는 서사는 판타지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콘텐

츠 수용자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부와 권력의 계급 차이가 두 주인공 간의 관계에서 파괴되면서 단지 인간과 인간과의 교감을 통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즐거워한다.[22] 〈킹더랜드〉는 이러한 교감과 연합의 대상을 여주인공 뿐 아니라 노동자로 확장시키고 이와 관계된 서사를 추가하여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결핍을 채우고 이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서민층의 대리만족 경험과 카타르시스적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주인공들이 결핍을 채우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부각된 것은 모성의 힘이다. 천사랑은 어린 시절 생모를 잃었지만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호텔에서의 하루를 잊지 못해 호텔리어의 꿈을 갖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구원은 회사에 관심이 없던 영국 유학시절 어머니에 대한 서류 한 장 때문에 킹호텔에 돌아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천사랑을 만나고 자취를 감췄던 구원의 생모 한미소는 구회장이 구원과 천사랑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 나타나 구회장의 방해를 막는다.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모성의 인상적인 면모는, 죽은 어머니가 곤경에 처한 자기 딸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기 위해 죽음의 세계로부터 되돌아온다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야기 원형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림(Grimm)형제버전에서 죽고 부활하는 어머니의 형상은 아름답고 심오하게 그려져 있고[23] 이러한 모티프가 〈킹더랜드〉에서도 나타난다.

신데렐라 서사의 클리셰인 주인공들의 결핍 해소를 노동자들의 결핍 해소로까지 확장한 〈킹더랜드〉는 남녀의 관계에 머물렀던 로맨스드라마의 갈등을 노사 관계의 갈등으로 확대해 서사의 외연을 넓히고 이로써 사

---

22) 김홍규·오세정, 「판타지 드라마의 심리적 만족 유형에 대한 연구: 〈꽃보다 남자〉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1권(제1호), 한국방송공사, 2009, 158-159쪽.

23) 최율리, 「신데렐라 다시 읽기 : '원초적 어머니'와 '불가의 소녀' 여성 원형상을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0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374쪽.

랑과 결혼에 대한 판타지 뿐 아니라 이상적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판타지를 제공하여 신분 상승의 판타지성을 배가시킨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신데렐라 드라마가 구축해 온 가족 이데올로기에 갑을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결핍 해소의 힘을 모성과 연계함으로써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안전한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2030세대 겨냥한 톤앤매너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느낌이나 분위기'로 정의되는 '톤앤매너(tone & manner)'는 특정 메시지를 표현할 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의 톤앤매너는 시청 타깃층에 대한 콘셉트를 유지해 드라마 정체성을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캐릭터, 스토리, 대사, 화면 연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킹더랜드〉는 2030세대를 겨냥해 드라마의 톤앤매너를 표현하고 유지하는데[24] 이를 위해 남녀주인공을 비롯한 주동인물들을 2030세대로 설정해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생활방식, 유머를 2030세대 코드에 맞게 표현하고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메시지로 전달해 드라마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

24) 미국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1981년~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밀레니얼 세대로 정의했는데 우리 사회는 밀레니얼 세대와 이후 출생한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MZ세대란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Z세대 문화 코드를 참고하여 〈킹더랜드〉에 나타난 2030세대 코드를 분석할 예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MZ세대는 향후 10년 내 세계 노동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며 경제활동과 소비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구성인구의 비율이 많은 세대가 MZ세대일 것이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이며 기존 세대와는 완연하게 다른 생활방식을 보이는데 이들이 소비와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따른, 기성세대와는 다른 MZ세대 삶의 방식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박순형,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제63권(제18호), 한말연구학회, 2022, 1쪽).

1) 즉흥적 유희와 직설적 화법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는 새로운 시청 환경과 콘텐츠 문법을 만들었고 〈킹더랜드〉는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에 익숙한 2030세대가 추구하는 영상 표현과 화법을 적극 활용하여 희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수용자가 드라마 등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해 일찍이 바르트(Barthes)는 '플레지르(plaisir)'와 '쥬이상스(jouissance)'로 구분했다. '플레지르'가 기존 장르 관습과 서사규칙을 토대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즐거움을 말한다면 이러한 서사의 의미 파악이 아닌 텍스트가 제공하는 '과도한 스펙터클'(the spectacle of excess)로부터 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며 즉흥적인 즐거움은 '쥬이상스'라고 보았고 웹 드라마는 쥬이상스 텍스트에 가깝다.[25] 〈킹더랜드〉는 정통 TV드라마의 문법을 깨는 웹 콘텐츠의 쥬이상스 텍스트 기법을 차용해 수용자의 취향을 반영한다.

1회에서 킹그룹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는 구원은 첫 출근 날,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타고 옆 건물 옥상에 착지한다. 구원의 낙하산 입사 장면은 드라마와 현실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재벌의 낙하산 인사를 상징하는 것이자 재치 있게 비트는 장면이다. 드라마가 재벌을 다루고 있으며 재벌 3세인 남자주인공이 낙하산 인사로 회사에 들어온다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밝혀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판에 박힌 재벌 캐릭터 설정을 당당하고 넉살 좋게 나타나냄으로써 유희적 상황을 만들고 높은 창공에서 남자주인공이 연기하는 시원한 낙하장면으로 스펙타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과 천사랑의 연애 사실은 '신데렐라 탄생'이라는 기사로 폭로하여 여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천사랑 주변인들이 수시로 말하게 함으로써 〈킹더랜드〉가 신데렐라 드라마이고 이는 의도한 것임을 투명하

---

25) 김미라, 장윤재, 「웹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및 서사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5, 319쪽.

게 밝히며 상황적 재미를 만든다.

한 공간에 살며 희로애락을 나누는 천사랑과 오평화, 강다을의 우정은 셋 다 감정 노동을 하면서 업무와 갑질에 지친 서로를 위로하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치며 속마음을 털어내고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털어낸다. 클럽 마니아인 다을이 결혼하여 애를 낳은 후 클럽에 못 가게 되자 이들은 다을의 딸 초롱이를 키즈카페에서 돌보며 미러볼과 댄싱타임이 있는 점핑 파크를 이용해 춤을 추고 사랑과 평화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홈파티용 미러볼을 이용해 댄스 타임을 갖는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면은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는 화면 효과를 연출하는 한편 현실이 비루하고 고달파도 화려하게 위로하며 플렉스를 추구하는 2030세대의 정서[26]를 반영하며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의 디지털 네이티브적 기질을 보여준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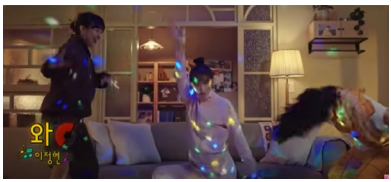
세 사람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파티를 즐기는 장면은 연기자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도록 촬영하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과 가사를 화면에 삽입함으로써 노래방 기계 속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하는데 이것은 정통 드라마의 규범을 초월한 즉흥적인 인서트 구성으로 유희적 기능이 강한 '패스티시'형식[28]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2030세대가 서사의 개연성보다 임펙트에 재미를 느낀다는 점과 패스티시 영상으로 숏폼을 만들고 즐기는 이들의 기호를 의식한 것이다.

---

26) 자신의 부를 자랑,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플렉스(FLEX)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MZ세대는 심미적 만족을 위한 플렉스로 가격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다(박순형, 앞의 글, 9쪽).

27) 고광열, 『MZ세대 트렌드 코드: 00년생이 온다! 90년생부터 따라잡아라!』, 밀리언서재, 2021, 42쪽.

28) 웹드라마는 내용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즉흥적이고 즉물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인서트 영상구성과 비판성이나 풍자성이 결여된 채 유희적 기능이 강한 상호텍스트적인 '패스티시' 형식을 자주 사용한다(김미라, 장윤재, 앞의 글, 320쪽).



〈그림 1〉 패스티시 영상 구성1

〈그림 2〉 패스티시 영상 구성2

출처: YouTube JTBC Drama (https://www.youtube.com/watch?v=IFDqbQZiUpM)

인턴 입사 동기인 구원과 나상식 사이에는 회장 아들과 평사원, 본부장과 과장이라는 계층과 직급 차이가 있지만 나상식은 구원이 상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돌직구를 날리며 솔직하게 말해 구원을 당황시키는데 나상식의 거침없는 입담과 직설적 화법은 계급 차이에 대한 인식과 고착된 관행을 비틀며 전복의 재미를 만든다.

<나상식의 직설적 대사>

본부장님만 믿고 있다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4회)/
제 말 듣고 있나요? 듣고 계세요? 아니 회사 주인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중략)
눈에 힘을 주지 마시고 직급에 맞는 힘을 가지시라니까.(7회)/
못한다니까요. 이거 사람을 작정하고 부려 먹겠다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이런 걸 시켜. 자기밖에 모르는 왕싸가지에 다른 사람 말을 듣기나 하나 누구한테 다정하게 웃어주기를 하나. 그거 100%계약 위반할 건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저는 못합니다.(7회)/
나갈 건데 본부장님이 사장 되시면 본부장 자리 저 주시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14회)/

상사에게 당당하게 승진을 시켜달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나상식의 화법은 펭수 화법을 연상시키는데 웹 콘텐츠에 나타난 펭수 화법은 B급 감성의 개그로 공유적 웃음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유희적'

이고 지위거래 게임[29]을 통해 기존의 갑을 관계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며 규범을 깨고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탈경계적'이다. '웃음'의 소통 방식과 '수평'의 소통 구조를 지향하는 펭수 화법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MZ세대 소통의 원형을 제시한다[30]고 평가받는데 〈킹더랜드〉는 나상식을 통해 2030세대가 추구하는 웃음과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적 소통을 통한 전복적 상황은 다을의 유치원에 다니는 딸 초롱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초롱이는 어른다운 말투로 어른들에게 충고함으로써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다. 이처럼 나상식을 비롯한 보조인물의 직설적 화법은 유희적 재미와 함께 2030세대가 수직적인 문화에 적응하며 느낀 답답함을 풀어주고 있다.

2)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

감정 노동 현장의 구태와 구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천사랑과 친구들의 위성서사는 2030세대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바라는 가치를 보여준다. 권력의 실세인 국회의원은 화를 풀기 위해 자신에게 서빙하던 천사랑을 해고시키라 하고 구화란은 국회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천사랑을 해고시키려고 한다. '국민엄마'라는 수식어가 붙은 중년의 스타 모성애는 SNS 팔로워를 거들먹거리며 알랑가와 킹호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인기로 위세를 떤다. 직위와 명성으로 갑질하는 윗세대의 위선과 허위, 모순과 권위주의를 견뎌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손님들의 억지와 무례

---

29) '지위거래 게임'이란 일반적인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를 바꾸는 것을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관객은 실제 행동의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뒤집힐 때 즐거워한다(키스 존스톤, (IMPRO Improvision and The Theatre), 이민아, 『즉흥연기』, 지호, 2000, 57-64쪽).

30) 김윤경, 「'펭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사회언어학적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호, 이화어문학회, 2021, 333-334쪽.

를 윗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에 따라 고분고분 수용해야만 한다.

구회장과 구화란은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착화시킨 고위 임원을 대표한다. 재벌 2세인 구회장은 돈만이 진심이고 알아야 할 진실은 이윤과 주가뿐이라고 구원을 가르치고 구화란은 직원들을 회사 부속품으로 여기고 직원 목숨도 돈으로 환산하며 회사 매출에 목을 맨다. 이들의 지시를 받는 중간 관리자 역시 다르지 않다. 킹그룹 본사 직원인 알랑가의 매니저는 파견 용역직인 다을과 점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업무 외적인 일들을 요구하고 본사 지시사항인 무리한 매출 목표를 강요하고는 목표를 달성해도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를 파견용역직원들에게 넘기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의 필요성을 들이대어 직원들을 위협하고 더 높은 매출 증대를 요구한다. 오평화가 일하는 킹에어는 승무원 관리와 경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몸무게를 수시로 체크하지만 사무장의 몸무게는 체크하지 않고 경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사무장에게 얼마나 잘 보였는가에 따라 승진을 결정한다. 이들은 생존경쟁에 매달리는 한국 사회의 기업 오너이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권력을 얻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이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에는 경쟁주의, 성과주의, 이기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성과를 내거나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천사랑과 친구들은 잘못된 조직 문화의 피해자이자 불공정한 현실에 지친 2030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이다. 고위계급에 의해 이미 형성된 시스템에 따라 천사랑과 친구들이 당하는 부당한 노동 현실은 우리 사회 불공정한 현실의 제유이고 이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나누는 대화는 현실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비판적 의식이며 선배들과 다른 어른이 되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열정은 2030세대의 현실 재현이다.

90년생이 바라는 것은 윗세대의 양보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이고 이들은 '청년세대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어떤 세대보다 계급적이다.

90년생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나누며 자체적으로 계급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회구조에 직접적으로 물음을 던지는 행위다. 이전 세대들도 불공정 문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외면하던 세대와 다르게 90년생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31] 있는 것이다.

〈킹더랜드〉는 2030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실을 천사랑과 친구들이 등장하는 감정 노동 현장의 사실적 에피소드로 재현하고 등장인물들의 반복적 대사를 통해 진정성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며 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 지도자형으로 구원 캐릭터를 제시한다. 웃음의 매력조차 진정성으로 판단할 만큼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재벌 3세가 직원들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과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회사의 구태를 없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이루는 모습은 2030세대가 바라는 리더의 표상인 것이다. 특히 한미소가 재벌과의 행복한 결혼, 직원 복지를 위한 노조 설립에 실패했지만 천사랑은 구원과의 결혼에 성공하고 구원이 킹호텔 사장으로 승진해 직원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결말은 변화에 실패한 기성세대와 변화를 이루고 있는 2030세대를 비교함으로써 이상적 변화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세대의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과 일과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IV. 결론

본 논문은 달라진 TV드라마 환경에서 신데렐라 드라마 〈킹더랜드〉가 어떻게 상투적인 서사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는지 클리셰 구현의 변주와 2030세대 코드 중심으로 서사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1) 고광열, 앞의 책, 113쪽.

먼저 클리셰 구현의 변주 측면에서는 첫째, 〈킹더랜드〉는 신데렐라 드라마의 갈등 기제가 되는 클리셰를 유지하되 역기능 요소를 생략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서사의 흐름을 변주했다. 로맨스의 핵심 갈등을 만드는 남녀 신분 차이, 남자주인공을 두고 형성되는 삼각관계 설정은 유지했지만 주인공들의 매력과 사랑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기능만 작용시키고 감정의 과잉이나 신파를 만드는 에피소드를 생략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로맨스의 재미에 집중했다.

둘째, 신데렐라 드라마의 핵심 플롯인 '여주인공 대 악녀'의 대립 구도를 '남주인공 대 악녀'의 구도로 바꾸어 이야기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갈등의 상투성을 극복하고 여자들 간의 경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여 신장된 여성주의를 반영했다.

셋째, 계급 차이를 초월한 사랑과 결혼으로 주인공들의 결핍을 극복하는 신데렐라 드라마의 구원 서사 대상을 보조 인물로 확장시켜 노동자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결핍을 충족시키는 결말을 완성함으로써 드라마의 주요 수용자층인 서민들의 대리만족을 배가시켰고 결핍을 해결하는 힘으로 모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기존 TV드라마 수용자 층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킹더랜드〉는 웹 콘텐츠를 비롯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의 코드를 반영해 정통 TV드라마 서사 문법을 깬 쥬이상스 기법으로 즉흥적 유희를 연출하고 2030세대의 수평적 소통을 재현하여 전복의 재미를 추구했다. 또한 2030세대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2030세대의 취향을 만족시켰다.

결과적으로 〈킹더랜드〉는 장르적 익숙함을 살리면서도 다채로운 클리셰를 효과적으로 변주하고 2030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수용자 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안전한 서사 전략을 구사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클리셰란 바꾸어 말하면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들'(김헌식,

2023)이다. 신데렐라 서사가 전 세계적으로 편재해 있고 천 년이 넘게 전승되어 다양한 콘텐츠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동일하며 신데렐라 서사가 인류의 보편적 욕망을 담은 대중이 원하는 서사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중서사는 익숙함과 변형 사이에서 공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된 수용자의 요구를 발빠르게 포착하고 보편적 욕망을 담은 익숙한 서사를 수용자 요구에 맞춰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대중은 갈등이 주인공들의 관계나 애정 등 일상성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상을 다룬 드라마들이 쇠퇴하고 범죄, 수사극, 재난물 등 굵직한 사회적 갈등과 세기말적 상황을 다룬 장르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재의 콘텐츠 생태계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대중심리를 포착한 〈킹더랜드〉는 주인공들의 연애에 머물던 로맨스드라마를 사회적 이야기를 포괄하도록 시야를 넓히고 폭넓은 수용자 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서사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위해 신데렐라 서사의 플롯을 해체하고 재구조화 한 후 팍팍한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살벌한 시대의 진실을 드라마적 판타지로 과감하게 돌파하여 신데렐라 서사를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했다.

참고문헌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최롬 극본, 임현욱·최선민 연출, 2023.

그림 형제, (Kinder- und Hausmärchen), 김경연, 박은지, 『그림형제 민담집 :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현암사, 2012.

이영미, 『신데렐라는 없었다』, 서해문집, 2022.

대중서사연구회, 『대중서사의 모든 것1. 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윤석진, 『한국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유지나,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 "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 민음사, 1999.

고광열, 『MZ세대 트렌드 코드 : 00년생이 온다! 90년생부터 따라잡아라!』, 밀리언서재, 2021.

시모어 채트먼,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홍재범, 『이야기와 담화 :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호모루덴스, 2019.

키스 존스톤, (IMPRO Improvision and The Theatre), 이민아, 『즉흥연기』, 지호, 2000.

콜레트 다울링, (Cinderella complex), 이호민,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브루노 베텔하임, (The Uses of Enchantment), 김옥순, 주옥, 『옛이야기의 매력2』, 시공주니어, 1998.

이다운, 「한국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서사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7.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2.

손은주, 「신데렐라형 민담의 의미와 역사」,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14권, 한국독일현대문학회, 2000.

김흥규·오세정, 「판타지 드라마의 심리적 만족 유형에 대한 연구: 〈꽃보다

남자〉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1권(제1호), 한국방송공사, 2009.

최율리, 「신데렐라 다시 읽기 : '원초적 어머니'와 '불가의 소녀' 여성 원형상을 중심으로」,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0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김미라·장윤재, 「웹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및 서사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5.

박순형,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제63권(제18호), 한말연구학회, 2022, 1-23쪽.

김윤경, 「'펭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사회언어학적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호, 이화어문학회, 2021.

「'킹더랜드', '서비스직 천재' 신데렐라가 나타났다 [K콘텐츠의 순간들]」, 『시사인』, 2023년 07월 12일자.

「'민폐 직장인'부터 아랍 왕자까지…'킹더랜드'의 로맨스가 짓밟은 것들」, 『한국일보』, 2023년 07월 12일자.

FlixPatrol, https://flixpatrol.com/streaming-services/most-hours-total/netflix/#toc-tv-shows(검색일 2023년 11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the Romance Drama 〈King the Land〉 - Focusing on the Variations in Implementation of Clichés and 2030 Generation Code -

Yoo, Jaeyoung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TV romance drama <King the Land> was able to succeed at the global box office with a Cinderella narrative that has fallen out of the public's interest in the recently changed content production and viewing environment, this paper analysed the storytelling of <King the Land> focusing on 'vari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clichés' and 'the 2030 generation code'. As a result, <King the Land> maintained the cliche that creates the core conflict of romance, but left only the sense of efficacy and omitted the excess of emotion and tearjerker, allowing the events to unfold quickly. In addition, by rearranging the binary opposition elements,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female protagonist vs. villainess' was changed to 'male protagonist vs. villainess', overcoming the cliché of the conflict and reflecting the increased feminism, and by expanding the target of a rise in status from the heroine to the worker, vicarious satisfaction of the viewers was expanded. Meanwhile, targeting the 2030 generation, <King the Land> created a comical situation using jouissance text techniques that broke the grammar of traditional TV dramas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delivered a message about fairness and just compensation pursued by the

2030 generation through realistic representation of emotional labor sites. The storytelling of <King the Land>, which effectively transforms clichés and quickly captures and reflects the changed psychology of the viewers, demonstrates a popular narrative strategy in which familiarity and transformation co-evolve.

Key Words : Storytelling, Cliché, Cinderella, 2030 generation, Romance drama